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특검은 정치공세”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반대' 입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 부총리로
"정부 로드맵 따라 의료개혁 추진"
개각 검토...반도체 경쟁력 강화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격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했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입장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하는 의료계와의 대치에도 굽히지 않고 의료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에서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충신을 지휘했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한 전 위원장과)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각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관련기사 2·3면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

김영록 지사, 복지부에 '국립의대 정원 배정' 건의

복지부 장관과 지역현안 논의 공중보건의 당직 허용 등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 발표를 하는 등 큰 지원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대도약 전남 발전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역역을 준비 중

이라며 9~10월께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전남도가 준비하는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시·군 318출생수당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요청했다. 또 출산장려, 자녀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협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사회보장기본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 중이니 전남도도 이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다"면서 "전남도가 건의한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협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전남도와 같이 인구소멸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중보건의사 당직근무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운용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탄력적 근무를 허용,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에 한해 야간·공휴일 당직 근무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법령 개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남도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호남인입니다
(605/1000)

윤하운 ▶관련기사 18면
유튜버·전 프로게이머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 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